

서점가 순위 이끈 '책 읽어 드립니다'

침묵의 봄·사피엔스·징비록 등 스테디셀러 알기 쉽게 풀어줘 비공개 추천위원단 통해 책 선정 시청자 입소문 나 마니아층 형성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요즘 서점가를 둘러보면 매년 손에 들렀다가 몇 장 넘기지 못하고 닫아버렸던, 묵직하고 어려운 '스테디 셀러'를 여러권 만날 수 있다.

스테디셀러 책들을 알기 쉽게 풀어주는 독서 프로그램 tvN '요즘책방 : 책 읽어드립니다(이하 책 읽어드립니다)'에 소개된 책들이다. '어려운 책은 쉽게, 두꺼운 책은 가볍게, 지루한 책은 재밌게'를 모토로 내세운 이 프로그램은 마니아층을 형성해 가고 있으며 유튜브에서도 방송 관련 클립 영상들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하고 있어 화제다.

지난 9월 말 방송을 시작한 '책 읽어드립니다'는 인기 역사 강사 설민석이 책의 내용을 쉽게 강독하면 MC 전현무, 가수 이적, 작가 장강명, 배우 윤소희와 각 분야의 교수 2명이 함께 수다를 떠는 듯 즐겁게 자신들의 생각을 나눈다.

첫 책으로는 세계적으로 1000만 부가 판매된 베스트셀러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가 선정됐다. 유발 하라리는 책을 통해 과거에서 오늘날까지 인간의 진보를 형성한 것으로 세 가지 대혁명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떤 전망이 있

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프로그램에 소개되는 책은 공정성을 위해 교수 등 20여명의 비공개 추천위원단을 통해 선정된다. 방송을 통해 알려진 책들로 프로그램에 소개되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주간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다. 지난 12월 방송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예고편만으로도 책 판매량이 증가해 출판사에선 급히 9000부를 새로 찍기도 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은 유대인 학살 나치 전범의 공판 기록을 담은 책이다. 주인공 아돌프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주해 15년 만에 체포된 1급 나치 전범으로 유대인 학살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이다. 아이히만은 1961년 열린 33차례의 공판에서 '독일의 군인 공무원으로서 지시대로 했을 뿐이다. 나는 유대인을 죽이지 않았다'며 당당한 모습으로 무죄를 주장해 분노를 샀다.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도 방송에 소개된 이후 독자들로부터 다시 호응을 받기 시작했다. 올

리버 색스가 신경과 의사로 재직하면서 만난 신경 질환 환자들의 임상 기록을 이야기를 들려주듯 독특하게 기록한 이 책의 방식은 의학계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던졌다. 교보문고 종합 4위, 예스24 종합 7위, 알라딘 종합 1위, 인터파크 도서 종합 3위 등 2월 첫째 주 서점가 베스트셀러 차트 10위권 안에 올랐다.

앞서 소개된 과학자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도 현재 예스24 종합 12위, 인터파크도서 종합 17위를 차지하고 있다.

방송에 소개된 책들이 주목받자 최근 출판사들은 새로운 표지를 두른 한정판도 출시하고 있다. 초판본 디자인의 양장 '데미안' 역시 방송에 소개된 뒤 인기를 모르고 있다.

이밖에 '군주론', '신곡', '징비록', '총, 군, 쇠', '넛지', '이기적 유전자', '정의란 무엇인가' 등 우리 시대 필독서로 손꼽히지만 쉽게 읽기는 다소 어려운 스테디셀러 등이 소개돼 시청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전은재 기자 ej6621@



오늘 오전 10시 아카데미상 시상식

'기생충' 트로피 몇개 들까

작품상·감독상 등 6개 후보 11개 부문 '1917'과 경쟁

봉준호 감독 '기생충'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과연 몇 개 트로피를 들어 올릴까.

올해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9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캘리포니아주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다. '기생충'은 작품상을 비롯해 감독·각본·편집·미술·국제영화상(옛 외국어영화상)까지 6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시상식은 10일 오전 10시부터 TV조선이 생중계한다.

'기생충'의 국제영화상 수상은 떼어놓은 대상으로 여겨지는 분위기다. 작품상과 감독상 수상 가능성도 점쳐진다. 작품상에는 총 9편이 후보에 올랐지만 '기생충'과 '1917'의 대결로 압축되는 모양새다. '1917'은 작품상 등 10개 부문 후보에 올랐다. 외국어 영화로는 역대 11번째로 작품상 후보

에 오른 '기생충'이 수상이 성공하면 아카데미 역사상 외국어 영화가 작품상을 타는 첫 사례가 된다.

봉 감독이 감독상을 받는다면 아시아계 감독으로는 대만 리안 감독 이후 두 번째다. 리안은 '브로크백 마운틴', '라이프 오브 파이'로 두 차례 수상했다.

'기생충'은 각본상 수상작으로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미국 작가조합, 영국 아카데미상에서 이미 각본상을 탔다. 봉 감독과 한진원 작가가 각본상을 받으면 '그녀에게'의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 이후 외국어 영화로는 17년만, 아시아 영화로는 첫 수상이다.

또 미국 미술감독조합상을 받은 이하준 미술감독과 조원우 세트 디자이너는 미술상 후보에 올랐으며 편집상 후보에 오른 양진모 편집감독은 외국어 영화로는 처음으로 미국 편집자 협회상을 받았다. /연합뉴스



아카데미 6개 부문 후보에 오른 '기생충'

지난해 화제작 '김군' '벌새' 등 6편 관객과 다시 만난다

광주독립영화관 10~12일 무료 상영

광주독립영화관(GIFT)가 '2020 첫 기획전'으로 지난해 개봉작 중 관객들의 사랑을 받은 작품들을 골라 다시 선보이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전은 10일~12일 광주독립영화관(광주시 동구 제봉로 96)에서 펼쳐진다.

먼저 10일에는 '주전장'(오후 1시)과 '이타미 준의 바다'(오후 3시 20분)가 상영된다. '주전장'은 일본계 미국인 데자키 감독이 한국, 미국, 일본 3개국을 넘나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3년에 걸쳐 취재한 영화다. '이타미 준의 바다'는 일본에서 태어난 한국인 건축가 이타미 준(유동룡)이 남긴 건축물을 통해 그의 삶을 따라가보는 다큐멘터리다.

11일 오후 1시에는 '벌새'가 관객과 만난다. '벌새'는 성수대교가 무너졌던 1994년 대치동을 배경한다. 가족들에게 별 관심을 받지 못하는 중학생 은희가 그녀를 이해해주는 유일한 어른 김영지 선생님을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베르겐 국제영화제 등 국내외 영화제에서 27개의 상을 받았다.

오후 3시 40분에는 18년 만에 만난 한 살 어린 여동생과 함께 사는 생활을 담은 '어른이 되면'을



지난해 27개 상을 수상한 '벌새'

상영한다.

12일에는 경북 칠곡에 사는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느끼는 기쁨을 담은 '칠곡 가시나무'(오후 1시)와 광주 5·18광주민주화운동 다큐멘터리 '김군'(오후 3시)을 스크린에 올린다. '김군'은 2015년 지만원씨에 의해 북한특수군 '제1광수'로 지목된 한 시민군이 평범한 광주 시민이었음을 추

적하는 다큐멘터리다. 사진 한장을 단서로 관련된 시민들의 증언을 모으는 전개와 '북한군 개입설'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내용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날 영화 '김군' 상영이 끝난 뒤에는 영화를 연출한 강상우 감독과의 관객과의 대화(GV)가 열린다. 전면 무료 상영.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스코세이지 9번째·존 윌리엄스 52번째 오스카 후보

시상식 비용 평균 525억

미국영화예술과학아카데미(AMPAS)가 여는 아카데미 시상식은 미국 최대 영화 축제다.

해마다 평균 3000만 명이 시상식을 시청하고 생중계 도중 방영되는 30초짜리 TV 광고료는 약 260만 달러(31억원)에 달한다.

'비즈니스인사이드' 등 외신에 따르면 시상식을 치르는 데만 평균 4400만 달러(525억원)가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톱 여배우들은 시상식 때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평균 1000만 달러(119억원)를 쓴다. 2014년 블루 재스민'으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케이트 블란켓은 1810만 달러(216억원)를 쓴 것으로 유명하다. 길이 34cm, 무게 3.8kg의 금빛 오스카 트로피를 제작하는 데는 400달러(48만원)가 든다. 남녀주연상을 받으면 몸값은 평균 20%가 뛰고 작품상을 받는 영화는 흥행 수입이

평균 1500만 달러(179억원) 늘어난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은 올해로 9번째 감독상 후보에 올라 최다 노미네이트 기록을 세웠으며 '디 파र्ट'로 한 차례 수상한 바 있다. 영화 '스타워즈:라이즈 오브 스카이워커'로 음악상 후보에 지명된 존 윌리엄스는 올해까지 무려 52차례나 후보로 지명됐고, 5차례나 수상했다.

한국 영화도 꾸준히 아카데미의 문을 두드려왔다. 1962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신상옥 감독)를 시작으로 '춘향전' '오아시스' '왕의 남자', '택시 운전사' 등이 외국어영화상에 출품됐지만, 최종 후보 지명의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아카데미상은 AMPAS 회원들 중 1469명이 개봉작을 대상으로 투표해 결정한다. 한국인 회원 수는 임권택·봉준호 감독, 배우 송강호·최민식·이병헌 등을 포함해 약 40명이다. /연합뉴스

작은만큼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062.220-0551

국제행복찾기 결혼정보 나주시 동점문길 8(중양동98-6)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최고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061)337-7712, 010-5288-3257	우영생기원 동구 독립로 282-10 (대인동) 2층 척추교정, 기치료, 유전질환치료, 건강상담 수액, 명당, 철학, 작명, 공학, 택일, 도인양성 각 분야 개인지도 ☎062)236-2655, 010-3646-2977	나주산약초 나주시 동점문길8 (나주터미널빌) 미세먼지 걱정됨!! ☎061)333-4514, 010-3620-7268	남악장례식장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로 250번길 59-30 시그니티 요양병원 1층 최신시설원비 친절·신용·분위 각종장례용품 염가제공 ☎061-285-0444	천을귀인 동구 필문대로 191번길 19 (산수동) 궁전타로, 인생심리상담, 사주명리학 타로 배우실분 신청하세요! ☎010-7186-6894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향촌 서구 상무회원으로 32번길 29-3(치평동) 한우, 생삼겹살, 돼지양념갈비, 대패삼겹살 육회비빔밥, 제육볶음, 김치찌개, 병면 시골떡국 단체손님환영 ☎062)371-0583, 010-3947-0005	三代(삼대)원조 나주곰탕 무안군 삼향읍 오룡2길 14 (전남도청 옆) 태양집 60년 전통 수육, 수육무침, 육회 포장기는 단체환영 ☎061)287-3229, 010-3602-0297	황금세차장(주) 남구 송암로 27번길 23 (송암공단에서 호천지구방향 진입로옆) 초대형셀프세차, 손세차, 광택, 유리막코팅 대표이사 김용연 ☎062)652-4564	자동차 밧데리 할인마트 북구 자미로12(신안동128-7번지) 무료출장 ☎062)252-1119, 010-9881-2922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 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초대화랑 동구 공동54-2번지(예술의 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062)222-2516
따뜻한내과·건강검진센터 북구 운암동 남양휴튼2차상가 2층 소화기 내시경 전문의 2인 진료시간 : 평 일 오전 8:30~오후 6시 토요일 오전 8:30~오후 1시 원장 이상선·박민규 ☎062)511-3388	완도전복 나주시 나주로 131 (나주신협옆) 산지 직송 도·소매 전국택배가능 ☎010-2831-9257	골프가방수선전문점 서구 치평동 세정아울렛점동 동양빌딩앞 명품가방수선, 골프가방수선, 등산화수선 전문점 ☎ 010-2087-3592	고전방 동구 공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학중 ☎062)224-4869	참깨와들깨 나주시 나주로15 (나주신협앞 다리 건너 위) 김밥·멸치국수전문점 김밥&멸치국수전국수 ☎061)332-9992, 010-7103-2556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 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